

제17대 KAIST 총장 후보 발굴에 대한

# KAIST 평의원회 의견서

KAIST 평의원회는 교수·직원·학생을 대표하는 민주적인  
대의기구로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KAIST 총장 후보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2020. 08.

# I. KAIST의 현안과 미래 이슈

구 분		현안과 미래 이슈
대외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일회성의 학교·학과 단위 행사를 중장기적인 전략적 분야·그룹 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춘 정기적인 행사로 체계화</li> <li>- 양적 성장 중심의 Follower 단계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First Mover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와 기준으로 패러다임 전환</li> <li>- KAIST 성공사례의 신흥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수·이식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적인 역할과 위상에 부응</li> </ul>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사회의 변화와 연계한 KAIST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대한 위상 재정립</li> <li>- 병역 혜택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해결과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추진</li> <li>- 시류적이고 정치적인 Governance를 안정이고 합리적인 Governance로 전환</li> <li>- 국가사회에 대한 KAIST의 역할·공헌 확대와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형성</li> <li>- 대학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이슈를 선도하고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li> </ul>
대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원인사 평가 기준 정립</li> <li>- 교육의 혁신성 강화와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li> <li>- 병역 T/O 감소, 신규 대학원 설립에 따른 기존 대학원 T/O 축소, Stipend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혼란과 갈등 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 마련</li> <li>- (대학) 진로·정체성이 부족한 융복합 교육을 진로·학과별 융복합 교육으로 특화</li> <li>- (대학원) 학과 간 중복·연계성 부족을 학과 간 심화·상호 보완성으로 강화</li> <li>- 주관적 진로 교육의 실효성 부족을 객관적 진로 교육의 전문화와 실효성 확충</li> <li>- 과학영재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KAIST의 정책적인 역량과 위상을 강화</li> <li>- 시대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의 검토·확산을 통한 독창성을 강화</li> </ul>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연구문화의 정착과 새로운 연구에 대한 도전을 장려</li> <li>- 개별 교수 중심에서 학교 중심의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사업의 발굴·기획</li> <li>- 비현실적인 교수 기본연구비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제도화</li> <li>- 부족한 기술지원인력을 확충하여 연구환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li> <li>- KAIST 내부재원의 투자·활용 효율화를 위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li> </ul>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직원 역량교육 확대 및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li> <li>- 보직자(교수·직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전문화 방안 마련·추진</li> <li>- 각종 정책의 협력·조율 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li> <li>- 행정의 변화 방향을 인식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인력의 운영</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IST에 대한 외부 환경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li> <li>- 세계 최고 대학으로의 성장·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과 재원의 확보</li> <li>- 핵심가치와 연계되는 학교와 구성원 평가지표 간의 연계성을 확립</li> <li>- 현실성·효율성·합리성이 미흡한 출장·정산·실적·특허 등의 제도를 개선</li> <li>- 구성원과의 소통·신뢰를 통한 민주적인 의견의 수렴·반영과 주인의식 고취</li> <li>- 구성원 간의 신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품격있는 문화와 공동체 조성</li> </ul>

## II. 바람직한 KAIST 총장상

구 분	내 용
도전적 비전 (왜)	미래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선도적 세계화를 위한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
현실적 철학 (무엇을)	KAIST의 대내외 현황과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과 핵심목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발굴
합리적 자질 (어떻게)	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연구·행정·환경 등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입안(기획)-운영(추진)-평가(회귀)의 선순환적인 해결방안과 측정지표를 제시
실행역량과 진정성 (누가)	KAIST 총장으로서 제시한 비전과 철학 및 리더십에 대한 이전 경험과 사례를 통해 실행역량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인물
애 교 심	다양한 대내외 현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맞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며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자세가 되어있는 애교심
변화·혁신	변화와 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시대에 앞서는 개혁을 통해 기존의 틀을 타파하며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소통·공감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KAIST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
신의·존중	구성원 간의 신의와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함께 공존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서로 협력을 통해 모색하는 KAIST 공동체를 조성
위상·영향	국내외 과학기술계에 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KAIST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

### Ⅲ. 종합 의견

제17대 KAIST 총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자국의 과학기술을 보호하는 국제 질서가 새롭게 부상하고, COVID-19 등으로 인한 인류의 삶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저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국가도약의 기회가 펼쳐지고 있으며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훨씬 막중해지고 있다. KAIST는 1971년 국가 발전을 부흥시킬 과학기술의 연구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병역 혜택 등을 통해 국가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발전하여 왔다.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세월이 흘러 KAIST를 둘러싼 상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별법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한 독자성은 후발 과기원들의 설립으로 공동의 과기원 체제라는 정책의 틀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병역 혜택의 축소는 KAIST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사회적 가치와 기준의 확산은 특혜적인 요소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KAIST는 이에 합당한 명분과 가치를 국가사회에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도모해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제17대 KAIST 총장은 대외적으로는 변화된 환경에서 국가사회에 대한 KAIST의 역할과 책무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학의 현안에 대한 이슈를 발굴·선도하면서 KAIST의 독보적인 위상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KAIST의 성과를 국가사회의 필요한 곳에 나누고 공유하는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축적된 역량을 국가사회의 필요한 곳에 나누며 국민이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KAIST가 되어야 한다.

제17대 KAIST 총장은 대내적으로는 구성원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함께하는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KAIST가 국가사회로부터 지원과 혜택을 받아야 하는 명분과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하기에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다. 혁신성은 KAIST의 존재 이유이며 정체성의 근간이다. 교육·연구·행정·국제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제도를 시도하고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러한 혁신이 총장의 개인적인 의지와 역량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시대적인 환경에서 총장의 능력에 의존하는 형태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발전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구성원이다. 총장은 학내의 다양한 현안과 구성원의 각기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구성원 간의 신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가 중요한 것이다.

제17대 KAIST 총장은 KAIST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당면한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갖춘 인사이어야 한다. KAIST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KAIST가 갖추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KAIST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되는 환경에서 KAIST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가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이끌어내면서 국가사회에 상응하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기여·공헌을 해야 한다.

제1대 KAIST 평의원회는 제17대 KAIST 총장 후보 발굴에 대한 평의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총장후보 발굴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